

보험사 M&A 냉각... 'MG손해보험' 불발로 가입자 발동동

우리금융, 생보 인수 빨간불
평가등급 하락에 발목 잡혀
메리츠 'MG손보' 인수 포기
파산 가능성에 가입자 불안
청산펀 5000만원 초과자 손실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고 우리금융지주의 ABL·동양생명 인수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보험업계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MG손해보험의 경우 파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가입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3개월 만이다.

앞서 MG손해보험은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매각에 나선 바 있다. 적격자를 찾지 못하던 중 메리츠화재가 인수에 나



최근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MG손해보험 본사. /뉴스시스

서면서 지난해 12월 M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를 추진했으나 그 과정에서 전 직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MG손해보험지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메리츠화재는 직원 10% 고용 유지와 250억원 규모의 위로금을 제안했으나 결국 노조 반대로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보험 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포기로 MG손보의 청산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험 소비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보험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다수의 보

험 계약자들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보험 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MG손보와 계약한 124만명으로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1만1470만명(1756억원)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이 되겠지만 가입 금액이 크거나 저축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 5000만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되면 가입자들에게겐 최선일 수 있지만 청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의 ABL·동양생명 인수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은행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금융은 종합금융 그룹 도약을 위해 보험사 인수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 ABL·동양생명의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 인수 작업에

돌입했다.

그렇지만 금융감독원이 최근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하면서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직전 경영실태평가에 비해 세부 평가항목 중 상향 조정된 항목보다 하향 조정된 항목이 다수 발생했다"며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한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으려면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3등급 이하여도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지난 2004년에도 우리금융이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았으나 LG투자증권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에 대해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분양 가뭄... 2028년 입주아파트 씨 마른다

서울 지난해 1순위 청약 0건 기록
올 수도권 입주 4만가구 감소 전망

올해 들어 분양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 일반분양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서울 지역의 분양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2028년엔 아파트 공급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순위 청약은 한 건도 없었다. 직전주에도 청약은 단 3건으로 618세대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특히 민간 일반분양 물량이 부진하다. 1월 분양 물량은 7440세대이며, 이 가운데 조합원분이 2371세대다. 이달 분양 물량이 1, 2월보다는 늘었지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데다 서

울의 경우 2년 여 만에 분양이 단 한 건도 없다.

다음주 예정되어 있는 일반분양 청약도 1000세대 안팎에 그친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시행사들이 느끼는 현재의 분양 환경은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올해의 분양 부진은 2028년의 부동산 시장 내 공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물게 나오는 있는 분양조차도 청약 미달이 발생했다. 3월 셋째주 3건 가운데 우선 분양 전환 후 남은 15세대를 공급하는 '성남관교 산온마을9단지 대방노블랜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부천 JY 포에시아'와 '안동 용상 하늘채 리버스카이' 모두 청약이 미달됐다.

김 연구원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여기거나 향

후 오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달이 발생한다"며 "땅값과 공사비는 상승했고, 이자 부담은 쌓인 만큼 경공매로 땅을 싸게 얻어오지 않는 한 원가 부담으로 인해 분양가를 낮출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청약 결과 부진은 분양 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분양 물량 감소는 시장의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 초과 수요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입주 물량은 이미 감소세다. 올해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1만 4154가구로 전년 대비 4만 가구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2026년은 상황이 더 악화돼 입주 예정 물량이 6만 9642가구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 7만 5563가구 이후 최저치다.

/안상미 기자 smahn1@

포항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1단지 분양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
약 77만㎡ 공원·편의시설 다양

경북 포항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가 지난 21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단지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 들어선다. 포항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남구 중심 생활권에 위치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짓는다. 지난해 분양한 2단지에 이어 선보이는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전용면적 84~178㎡, 총 999세대로 구성된다.

1단지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432세대 ▲84㎡B 55세대 ▲84㎡C 126세대 ▲127㎡ 378세대 ▲139㎡P 4세대 ▲178㎡P 4세대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는 공원시설(약 77만㎡)과 비공원시설(약 17만㎡)로 구성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된다. 상생공원은 도로로 분절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 투시도.

된 4개의 공간을 연결하고 공간별 특화 계획을 통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공원 안에는 갤러리프라자(예정), 아트프라자(예정), 워터프라자(예정)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계획돼 있으며, 수려한 포스코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해맞이 전망대(예정)가 들어선다. 또한 실내수영장(예정), 다목적체육관(예정), 문화센터(예정) 등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예정)가 조성될 계획이다.

아울러 포항성모병원, 이마트(포항 이동점), 롯데마트(포항점), 이동종합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전지원 기자 jiw13@

사망보험금에 납입보험료 100% 보장 '상속종신보험' 인기

ABL생명, 고령화 시대 니즈 반영
기납입·총납입P플러스형 구성

ABL생명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에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주는 '(무)ABL THE해주는 상속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지난 2월 12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사망보험금 지급 방식에 따라 1형(기납입P플러스형)과 2형(총납입P플러스형)으로 구성된다. 1형은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와 더불어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형은 보험가입금액의 100%와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 총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간편심사형에 한해 ▲최근 3개월 이



내에 질병확진단·의심조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조건 ▲최근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무관 ▲5년 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지만으로 고령자와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기능을 신청하면 보험료

납입완료 후 본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감액해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생활설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나이는 일반심사형 1형(기납입P플러스형) 기준, 남자만 15세에서 최대 72세까지다.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김순재 ABL생명 상품실장은 "이 상품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과 함께 돌려드려 상속세 재원 마련은 물론 개별적인 재정 계획에 맞춰 고령화 시대에 유연하게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실속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국민카드-한국타이어 'TBX 카드' 출시

타이어 교체비용 최대 24개월 할부

KB국민카드는 한국타이어와 제휴를 통해 TBX대리점 구매 혜택을 탑재한 'KB국민 TBX 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라이트할부' 기능을 탑재했다. 타이어 교체비용을 최대 24개월 할부로 결제할 수 있다. 30만원 이상을 12·18·24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남은 잔액은 원금균등방식으로 상환한다.

전월실적을 달성하고 라이트할부 잔액이 있는 경우 매달 청구대금을 최대 1만 2000원 차감한다. 라이트할부 잔액이 없는 경우 최대 5000원을 환급하는 보상 서비스도 준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국민 TBX 카드는 트럭, 버스 등 상용차 고객을 대상으로 라이트할부 서비스를 제공해 타이어 교체 시 목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